

혼사장애의 측면에서 본 고전소설의 도입부와 결말부

—坊刻小説을 중심으로—

李 昶 憲*

1. 서 론

坊刻의 형태로 印行된 古典小説들을 다른 소설들과 비교하였을 때, 텍스트의 분량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 길이가 짧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이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도입에서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서술이 비교적 定型化¹⁾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부정적 언급이 있어왔으나, 이렇게 정형화된 모습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형화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더 나아가 정형화된 모습들 안에서 보여주는 辨別的 요인을 중시하면서 이들 정형성과 변별성이 지니는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겠다.

물론 접근하는 입장에 따라서는 정형화의 모습을 방각본이라는 형태로 인행되면서 필연적으로 지니게 되는 작품의 상업적 성격²⁾에 기인한

* 시간강사

- 1) 여기에서 말하는 정형화는 상투어구(cliché) 또는 상투어(stereotype)화라는 것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투어라는것은 어떠한 의미전달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언어 요소의 단순 되풀이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정형화는 오히려 고정화 또는 구조화라는 측면에 더 가까이 간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투어화가 의도적으로 사용되어 문학성을 달성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한편의 작품 안에서 또 한 작가의 작품들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 2) 방각본으로 인행된 소설의 상업적 성격은 여러차례 언급된 바 있으며, 필자 역시 방각본 소설의 상업적 성격이 이본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경판을 중심으로 검토한 바 있다. 拙稿, 京板坊刻小説의 商業的 性格과 異本出現에 對한 研究(冠嶽語文研究 12, 1987).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떠나 오직 정형화의 程度라는 측면에서 작품의 도입부와 결말부를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작품의 도입부와 결말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여주는 정형화의 정도를 작품의 주요인물에 해당하는 주인공이 보여주는 연행 방식의 정형화 정도와 비교하였을 때, 이들 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주인공이 보여주는 연행 방식의 다양성은, 비록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는 정형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주인공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드러내줌으로써, 도입부나 결말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니는 정형화의 고정적 측면을 선명하게 드러내준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 도입부나 결말부에 해당하는 서술이 보여주는 정형화의 의미를, 주로 작품의 중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도입부에 대하여는 영웅성을 부각시켜 주기 위한 가계의 설정이거나 탄생의 신이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왔고, 결말부에 대해서도 주인공의 신격화 내지 현세적 부귀의 한 모습으로 이해해왔다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작품의 도입부와 결말부를 상호 대비하였을 때, 거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작품의 도입부에 나타나는 상황—곧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식의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상황과 결말부에 나타나는 상황—곧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식의 풍요로운 생산이 있다는 상황의 대응이다. 즉 작품에 등장하는 고유명사로서의 인물이 누구인가를 배제하였을 때, 작품 도입부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은 생산의 풍요와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작품의 결말부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은 풍요로운 생산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작품의 時·空間的 전개에 의하여 그 전개방향과 병행하면서, 생산이라는 면에서는 無産性 혹은 單産性에서 多産性³⁾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두드

3) 여기에서의 無産性 單産性 多産性은 자식의 生産이라는 측면에서 생산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 이상인가 라는 기준에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無産性은 자식의 생산이 없다는 것이며, 單産性은 자식의 생산은 있으나 하나에 한정된다는 單數로서의 생산이며, 多産性은 둘 이상 곧 複數로서의 생산이 있음을 말한다.

러진 양상은 전개방향을 따라 서술의 대상이 老에서 少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도입부에 나타나는 年老한 世代(父의 世代)에 있어서의 無産性 혹은 單産性이 결말부에 나타나는 年少한 世代(子 혹은 孫의 世代)에 있어서의 多産性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老에서 少로의 전이가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끝으로 작품의 전개방향과 병행하여 서술되는 인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숫자의 증가는, 인물 역시 대상으로서의 세계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점에서, 인식의 주체로서 주인공이 접촉하는 대상 곧 부분으로서의 세계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들 정형화된 작품들이 보여주는 전이의 전개방향, 즉 無産性 혹은 單産性에서 多産性으로, 老에서 少로, 小에서 多로의 전이라는 전개방향이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곧 지속적인 생산을 통하여 가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며, 아울러 가족의 유지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복제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드러나는 子라는 존재가 지니는 의미는 父와 대립된 존재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父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존재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혼사가 儀禮化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특성 때문에 의례 과정 중에서 無子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주술적 장치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고전소설의 도입부 그리고 결말부가 지니는 정형화의 의미를 혼사를 중심으로—좀더 정확히는 혼사장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혼사가 지니는 의미를 세계의 지속과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4) 여기에서 주술적 장치가 사용된다는 것은 혼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豐饒와 多産을 기원하는 행동과 관련된다. 예를 들자면 등롱쟁이는 둘다 첫아들을 낳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합진에비는 첫아들을 낳고 화를 안 당했으며 또 자녀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에서 골라야 된다, 신부의 치마폭에 밤대추를 던져주며 아들을 많이 낳으라고 말한다 등등 다양한 상징으로 나타난다. 상세한 것은 朴憲仁, 韓國의 傳統婚禮 研究(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8) pp.130-142 참조.

살펴보고, 이어서 혼사에 관련된 혼사장애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기왕의 연구를 검토하면서 혼사장애의 개념과 구조를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고전소설의 도입부와 결말부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세계의 지속과 단절에서 본 혼사와 생산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 冠婚喪祭라 하여 四禮의 하나로 중하게 여겨오던 혼사가 지니는 의례 절차나 생산이 지니는 의례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지속과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혼사와 생산이 지닐 수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혼사와 생산이 지니는 의미를 세계의 지속과 단절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인식의 주체로 존재하는 인간과 그 대상이 되는 객체로서의 세계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세계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는 형태의 것 곧 自存的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체로서의 인간에 의해 인식됨으로써 존재하는 형태의 것 곧 依存的 존재인가 하는 물음이다. 세계가 자존적 존재라 한다면 세계와 인간의 관련성은 전체로서의 세계와 그것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세계가 의존적 존재라 한다면 세계와 인간의 관련성은 세계를 규정하는 인간과 인간에 의해 규정되는 세계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전자의 경우 자존적 존재인 세계는 시·공간이라는 면에 있어 무한한 것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며, 후자의 경우 의존적 존재인 세계는 시·공간이라는 측면에 있어 한정적인 것 단절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둘은 혼사와 생산에 의해 후자에서 전자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상호 화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기에 여기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부터 논의하기로 한다.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객체는 인식하는 주체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인식의 대상인 객체로서의 세계의 존재형태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사람의 인식태도에 의존하며, 인식의 주체인 사람은 인식의 주체인 자신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기에, 인식의 주체로서의 사람의 인식태도는 인식

의 주체인 객체로서의 사람에 대한 인식태도에 의존한다 하겠다. 이는 곧 사람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사람은 시간적 제약을 지닌 限時的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무한한 존재인가?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점에 있어서 시간적 제약을 받는 한시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한시적 존재에 의해 규정되는 세계 역시 한시적 존재로 규정된다. 따라서 사람에게 始終이 있듯이 세계에도 그 始終이 있게 된다. 한시적 존재로서 사람을 규정했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삶 그 자체가 유한하다는 점에서 한시적 삶 안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규범 등 모든 것이 한시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한시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파악된다.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된 대상이라는 점에서 결국 사람은 인식의 주체인 스스로를 부정한다. 따라서 사람의 지속과 단절이라는 선택에 있어 사람은 스스로 단절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인식의 주체로서의 사람의 지속과 단절이라는 것이 바로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세계의 지속과 단절이라는 것으로 연결되기에 사람의 단절은 곧 세계의 단절을 의미하게 된다.

반면에 사람이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무한한 존재라면 사람에게 의해 규정되는 세계 역시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람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의 유지—이는 곧 세계의 유지로 연결된다—라는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 스스로를 有限子라 규정했을 때 세계 역시 유한자로 규정되며, 스스로를 無限子라 규정했을 때 세계 역시 무한자로 규정된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무한자로 규정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이 추구하던 가치나 삶 그 자체가 긍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생산이라는 방식에 의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한 사람과 생산된 사람의 상호관련성이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생산한 사람과 생산된 사람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생산한 사람과 생산된 사람이 동일하다는 인식이 없다면 생산된 사람과 생산한 사람은

각각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생산이 있어도 각각의 사람에 의해 규정된 세계는 사람이 독립된 개체인 것처럼 규정된 세계 역시 독립된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두 세계의 합은 전체로서의 지속의 세계가 아닌 단절된 세계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각각의 개체에 의해 파악된 세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체가 동일시 될 수 있어야 한다. 곧 생산한 사람과 생산된 사람을 연속체로서의 사람이라는 개념의 설정이 가능해진다.

바로 이 지점에 혼사와 생산이 의미를 가지고 위치한다. 사람은 單性生殖을 하는 것이 아니라 兩性生殖을 하기에, 동일시 될 수 있는 개체의 생산을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 필요하다. 곧 性差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으로서의 사람과 여성으로서의 사람의 결합에 의해 사람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사람에 의해 생산된 사람이 사람을 생산한 사람과 동일시되기 위한 사회적 공인이 필요하게 되며, 바로 그 기능을 혼사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혼사가 의례화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혼사에 의해 형성된 관계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성으로서의 사람-이는 신랑 혹은 남편으로 불리운다-과 여성으로서의 사람-이는 신부 혹은 아내로 불리운다-의 결합에 의하여 생산된 사람이 생산한 사람과 동일시⁵⁾되기 위해 충족시켜야만 할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 혼사이며,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인될 때 의례화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때 생산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夫婦關係라 하며 생산한 사람과 생산된 사람과의 관계를 父子關係⁶⁾라 한다. 따라서

- 5) 이때에 생산한 사람과 생산된 사람이 동일시되는 방식은 사회의 문화적 조건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낸다면 대개 $M1=M2$, $F1=F2$, $M1=F2$, $F1=M2$ (이때 M은 남성 F는 여성이며, 1은 생산한 사람, 2는 생산된 사람을 나타내며, =은 동일시된다는 의미이다)과 같은 방식이 가능하다. 이들중 어느 관계가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가족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 우위의 父家長的 가족제도 안에서는 $M1=M2$ 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겠다.
- 6) 여기에서는 남성 우위의 부가장적 사회를 전제로 하였을 때에 부자관계라는 것이며, 이후의 모든 논의는 부가장적 사회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부자관계와 부부관계는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가족관계 중 세대의 先後라는 측면에서 각각 수직적 가족관계와 수평적 가족관계의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부부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세계의 지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식을 생산하며, 이렇게 생산된 사람과 생산한 사람은 부자관계에 의해 동일시될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동일시 곧 자기 복제의 가능성이 존재함으로써 세계의 지속이 가능해지며, 세계의 지속이 가능해짐으로써 사람의 삶이 긍정되고, 또한 추구하고자 하던 가치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단절된 것으로 파악된 세계는 지속되는 세계로 전환되며, 이 전환의 지점에 혼사와 생산이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장애라는 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장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동일시될 수 있는 생산의 가능성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지속에 대한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혼사장애가 단지 가족 내에 있어서 수평적 가족관계에 대한 장애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가족관계에 대한 장애로 남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혼사와 생산은 인간의 한시성에서 무한성으로의 전환을, 세계의 유한성에서 무한성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며,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의 자존적 존재로의 성립 가능성을 가져온다 하겠다. 결국 세계는 세계 그 자체이며 사람 그 자체라 할 수 있겠다.

3. 혼사장애의 개념과 구조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의 활동양상은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여성 자신이 작품의 주요 인물로 기능하면서 전체를 통괄하는 활동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작품의 부수적 인물로 기능하면서 남성과의 관계망 속에서 삶의 단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도 그 곳에는 여성과 대응관계를 이루는 남성의 등장이 필수적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곧 여성의 작품 내적 의미의 파악은 남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남성 역시 여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준다 하겠다.

이같은 남성과 여성의 상호 관련성은 항상 문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전소설에 있어서의 이러한 관련성은 남성과 여성의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측면에서 잘 드러난다 하겠다. 특히나

고전소설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의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양상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를 혼사장애라 부르기도 한다.

혼사장애에 대한 관심은, 비록 그 대상이 소설은 아니지만, 서사문학의 한 범주에 속하는 서동·운달 전승의 검토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들 전승에 있어서 공통되는 6개의 에피소드군을 추출하고, 이를 해모수의 혼사에 나오는 에피소드군과 대비하여 그 공유의 정도를 살피면서, <이러한 婚事障擱 내지 試鍊이 入社式의 당연한 延長인 通過祭儀로서 또는 入社式과 밀접한 聯關性을 지니고 있는 通過祭儀로서 婚事가 宜當 지니고 있어야 할 祭儀節次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⁷⁾

남성과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특히 혼사 문제가 자주 취급되는 고전소설에 있어서 혼사장애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기에, <成人이 되기 위한 通過祭儀>로 풀이되는 <婚事障擱 主旨가 古典小說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受容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形態論의 측면 및 精神史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 또 그 美學的 基底에 관해서 검토해 보고자>하여, 樂善齋本 소설에 있어서 혼사장애주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이른다. 그 결과 <障擱誘發→分離와 試鍊→歸還과 婚事確認>이라는 진행과정이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수용되는 양태에 따라서 혼사장애는 基本型構造, 發展型構造, 複合型構造라는 분류가 가능하며, 그 美學的 基底로서는 二元的 世界觀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⁸⁾

또한 巫歌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심이 표명되어, 제석본풀이에 있어서 여성수난을 중시하여 혼사장애는 <혼례식의 절차로서 형성된 원형>이라기 보다는 <生産神-地母神 수난에서 형성된 원형>으로 파악된다고 하면서, 이를 여성수난의 한 양상으로 보아 여성의 일생이라는 측면에서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제석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수난의 모습을 고전소설·신소설·현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수난의 모습과 대비하여 검토하기도 하였다.⁹⁾

7)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一潮閣, 1971) pp.142-5.

8) 李相澤, 韓國古典小說의 探究(中央出版, 1981) pp.298-328.

9) 徐大錫, 韓國巫歌의 研究(文學思想社, 1980) pp.170-83. 영웅의 일생이라는 용어가 투쟁적 성격을 암묵적으로 지닌다는 점에서 남성의 일생이라

이렇게 관심이 고조된 혼사장애에 대한 연구는 이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간략히 살펴본다면, 먼저 明代短篇小說과의 비교연구라는 모습으로,¹⁰⁾ 또는 여성영웅소설에 있어서 <비자발적 헤어짐—자발적 만남>이라는 남녀이합구조의 한 방식으로,¹¹⁾ 혹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표리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상동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지적으로,¹²⁾ 그리고 숙영낭자전과 장화홍련전의 대비를 통하여 혼사장애 모티프의 변이와 그 의미를 추출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¹³⁾ 넓게는 신소설에 있어서의 혼사장애에 대한 검토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¹⁴⁾ 필자 역시 혼사장애구조의 설정과 유형을 분류하여 그 변화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려 하였으며,¹⁵⁾ 민담의 일반적 성격으로서의 結婚譚 중에서 특별히 結婚試鍊譚이라 하여 <나뭇꾼과 선녀>와 <우렁색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남성이 여성측에게 자신의 적격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겪는 試鍊 뿐만 아니라, 결혼을 위해 주어진 禁忌와 이를 어김으로써 발생하는 分離, 그리고 분리 뒤의 재결합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남성이 주로 시련을 담당하는 구조적 원형의 존재 가능성을 조심스레 탐색하려는 노력도 있었다.¹⁶⁾

이러한 혼사장애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혼사장애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야 하는가였다. 그것은 곧 혼사장애

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과 대비할 때, 여성의 일생이라 함은 수난이라는 암묵적 성격을 지님과 함께, 남성의 일생으로서의 영웅의 일생과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0) 신동일, 韓國古典小說에 미친 明代短篇小說의 影響(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여기에서는 韓國古典小說에 受容된 婚事障礙의 양상을 妖怪退治說話, 백능수건插話, 男裝結緣譚, 女裝結緣譚, 好色逢辱說話라는 다섯가지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 11) 閉 燦, 女性英雄小說의 出現과 後代的 變貌(國文學研究 78, 1986). 여기에서는 혼사 이전의 남녀이합만을 혼사장애주지라 규정하고, 혼사 이후의 남녀이합은 혼사장애주지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p.17 참조).
- 12) 金鐘澈, 玉樹記 研究(國文學研究 71, 1985) pp.50-6.
- 13) 박태상, 장화홍련전의 구조와 의미,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새문사, 1986) pp.232-60. 특히 p.249 이하를 참조할 것.
- 14) 金忠實, 新小說에 나타난 婚事障礙樣相에 對한 연구(梨花女大 석사학위 논문, 1981).
- 15) 拙稿, 고전소설의 혼사장애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國文學研究 81, 1987).
- 16) 李志映, 韓國結婚試鍊譚 研究(國文學研究 85, 1987), pp.106-7.

의 개념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혼사장애를 혼사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장애로 파악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혼사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에 있어서의 장애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후자의 입장 곧 혼사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에 있어서의 장애까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혼사장애의 개념 설정이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혼사장애는 광의의 혼사장애와 협의의 혼사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의의 혼사장애는 혼사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장애로 설명될 수 있으며, 광의의 혼사장애는 협의의 혼사장애와 이것의 구조적 반복인 회복의 혼사장애를 포함하는 것이다(17). 이는 결국 없었던 가치나 관계의 획득과 관련되는 혼사장애 즉 혼사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장애라 할 수 있는 <不在하던 가치 또는 관계인 부부관계의 획득에 있어서 부딪히는 장애>로서의 <획득의 혼사장애>를 한 가지로 설정하고, 아울러 이것의 구조적 반복으로 나타나는 훼손된 가치 혹은 관계로서 부부관계의 회복과 관련되는 혼사장애 즉 혼사라는 관계에 있어서의 장애라 할 수 있는 <훼손된 가치 또는 관계의 회복에 관련되는 장애>로서의 <회복의 혼사장애>를 설정하여, 이 <획득의 혼사장애>와 <회복의 혼사장애>를 포괄하는 광의의 혼사장애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를 보이던 다음과 같다 하겠다.¹⁸

- (가) 획득되거나 회복되어야 할 부부관계가 나타난다.
- (나) 반대자에 의해 신랑(신부)에게 과업이 부여된다.
- (다) 신랑(신부)이 신부(신랑)의 소속집단으로부터 분리된다.
- (라) 원조자의 도움으로 신랑(신부)이 과업을 해결한다.
- (마) 신랑(신부)이 신부(신랑)의 소속집단으로 복귀한다.
- (바) 획득되거나 회복된 부부관계가 나타난다.

특히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치 혹은 관계란 다름아닌 부부관계로

17) 拙稿, 앞의 글, pp. 17-23.

18) 여기에 예시한 구조는 광의의 혼사장애구조로서 획득의 혼사장애와 회복의 혼사장애를 포괄하려는 입장에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획득이나 회복이나는 문제는 단락 (가)와 (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 하겠다. 획득의 경우는 단락 (가)의 내용이 획득되어야 할 부부관계가 나타난다로 단락 (바)의 내용이 획득된 부부관계가 나타난다로 이해되며, 회복의 경우는 획득 대신 회복으로 대처하여 읽으면 되겠다.

서 수평적 가족관계¹⁹⁾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사회에 의해 공인된다는 것은 곧 그것이 그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혼사의 의미가 終生的²⁰⁾ 관계로서의 남성과 여성의 공인된 결합으로서 인간의 재생산을 통한 세계의 지속이라고 하였을 때, 수평적 가족관계로서의 부부관계의 장애라는 것은 곧 生産에 의한 다음 세대로의 지속을 목표로 하는 父와 子로 대표되는 수직적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장애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혼사장애는 단순히 부부사이의 장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지속에 대한 장애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혼사장애 연구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되었던 것은 작품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비교적 독립된 혼사장애였다 하겠다. 따라서 이제까지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주인공의 앞세대 곧 주인공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전개되는 혼사장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검토는 곧 혼사장애를 독립된 개별적 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 혼사장애의 의미를 추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고자하는 도입부의 혼사장애는, 이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오랫동안 부부관계가 지속되어왔다는 점에서, 즉 이들이 부부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서술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관계라는 상황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회복의 혼사장애>에 해당한다. 비록 작품의 도입부에서 이들과 관련된 서술이 비교적 간략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 이들 서술이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술의 양과는 달리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기에 이를 도입상황이라 하여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하기도 한다.²¹⁾ 따라서 이 도입상황을 통하여 이

19) 수평적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 중에서 父-子로 대표되는 수직적 가족관계의 축을 고려하였을 때 축의 방향이 수평적이라는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의 평등과 같은 가치개념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20) 여기에서 종생적 관계라 함은 당사자인 부부 중에서 어느 한편의 죽음에 의하여 그 관계가 당사자나 그가 속한 사회에 의하여 완전히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1) 여기에서 말하는 도입상황은 Propp가 말한 initial situation에 해당하는 것(V. Propp, Morphology of the Folktale, 1968)으로 기능소는 아니지만 작품 전개 방향과 윤곽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형태소로 취급하고 있다. 李相澤, 古典小說의 探究(中央出版, 1981) p.10 참조.

들 부부 사이의 관계를 살폈을 때, 이들의 부부관계에서는 다른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슬하에 자식이 없다는 것만을 하나의 원망형태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부관계의 지속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실제 작품의 서술 양상을 살펴 보았을 때에도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²²⁾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작품의 도입부는 이들 사이의 부부관계의 성립 또는 획득과 관련된 언급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들 부부 사이에 개재해있는 혼사장애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회복의 혼사장애>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하겠다.²³⁾

- (가) 회복되어야 할 부부관계가 나타난다.
- (나) 반대자에 의해 신랑(신부)에게 과업이 부여된다.
- (다) 신랑(신부)이 신부(신랑)의 소속집단으로부터 분리된다.
- (라) 원조자의 도움으로 신랑(신부)이 과업을 해결한다.
- (마) 신랑(신부)이 신부(신랑)의 소속집단으로 복귀한다.
- (바) 회복된 부부관계가 나타난다.

4. 혼사장애로 본 도입부와 그 의미

고전소설의 도입부에서 흔히 나타나는 주인공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전개되는 혼사장애는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 22) 속향전과 같은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겠다. 속향의 부친 김선과 모친 장씨의 혼사에 있어 김선이 반하수에서 구한 거북으로부터 얻은 구슬로 빙패하니 이에 장씨의 모친이 그 빈한함을 책하는 말이 있으나 장희의 타이름으로 더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金東旭 外編,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卷四(羅孫書屋, 1975) pp. 459-60.
- 23) 이 구조는 앞서 예시한 바 있는 광의의 혼사장애구조 중에서 획득의 혼사장애에 해당하는 요소를 배제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회복의 혼사장애가 가지는 규범적 구조라 하겠다. 그리고 회복의 혼사장애가 연쇄화되는 경우에는 단락 (마)에 의하여 확인된 부부관계가 다시 단락 (가)의 회복되어야 할 부부관계로 인식된다는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하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의 상황이 스토리의 계속적인 전개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달리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며, 텍스트의 진술이 끝날 때까지는 최종적 균형의 상태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도입부라 할 수 있는 주인공의 탄생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습들이 보여주는 정형화된 양상들은 대개 〈誕生이 오랜 無子 끝이거나 迂餘曲折을 겪은 끝에 이루어진다〉²⁴⁾거나 혹은 〈孕胎나 出生이 非正常的이었다〉²⁵⁾던지 〈기차치성〉²⁶⁾의 과정을 보이기 때문에, 〈가계와 가문의 단절〉²⁷⁾을 의미하는 絶孫의 위기는 生産을 하지 못하는 아내로서의 여성과 남편으로서의 남성 사이에 하나의 위기로 파악되며, 이러한 위기는 바로 종생적 관계인 부부관계에 대한 위협으로 파악된다. 더군다나 당대 사회에 있어서 여성이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인 부부관계의 단절을 당연시하는 無子去라는 항목이 七去之惡 중에 엄연히 존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위기는 심각한 것이며, 더군다나 조선조후기사회에서 강화되고 강조되던 가문의식 특히 종손을 중시하는 종손 우위의 가문의식을 고려할 때²⁸⁾ 절손의 위기가말로 결정적이며 심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 작품 속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인식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²⁹⁾ 즉 자식이 없는 것은 다 팔자소관이다, 팔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팔자는 고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식이 없는 것은 여자탓이다(이러한 인식은 과업이 신부에게 부과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식이 없는 것은 여자탓이 아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과업이 신랑과 신부 양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자식이 없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등등. 등장 인물들이 이러한 인식을 보인다는 것은 곧 자식을 생산하는 것을 그들이 해야할 당연한 일중의 하나로 심지어는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즉 자식의 생산이 부부로서의 그들에게 부가된 주요한 과업의 하나임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를 과업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그들에게 이

24) 金烈圭, 앞의 책, p.61.

25) 조동일,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東亞文化 10, 1971) p.169.

26) 徐大錫,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이대출판부, 1985) p.27.

27) 成賢慶, 고전소설과 가문, 家와 家門(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p.35.

28)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研究(一志社, 1983) pp.670-768 및 宋俊浩, 朝鮮社會史研究(一潮閣, 1987) pp.16-115를 참조할 것.

29) 成賢慶, 앞의 글, p.37 참조.

것이 과업으로 부과되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누군가에 해당하는 인물이 반대자의 기능을 담당한다.³⁰⁾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반대자가 인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록 반대자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분명 작중의 인물은 이들 하나의 과업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소속해 있던 집단 내에서 통용되던 원리 혹은 가치가 이를 대신한다 하겠다. 즉 종생적 결합으로 형성된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식의 생산이라는 것이 하나의 당위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당대의 사회가 부가장적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명산대찰을 찾는다면지 일월성신에게 축원을 한다던지 하는 형태로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던 집단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적어도 심리적인 상태에서나마 분리가 일어난다. 물론 이때에 명산대찰을 찾거나 혹은 일월성신에게 축원을 하는데 있어 그들이 보여주는 의식은 이를 온전히 존송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을 부정하던지 한다. 즉 그들은 신비의 세계와 기도의 효험을 믿기 때문에 자식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명산대찰이나 일월성신에게 기자축원을 하거나, 혹은 이를 믿지 않고 오직 합리의 세계 및 현실직 행위·현상만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나 누군가의 권유에 의하여—이때 누군가는 대개 배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설복한다—마지 못하여 기자축원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직 선을 베풀어 덕을 쌓는 행위를 한다. 여기에서 덕을 쌓는 행위만을 하는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것이라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기자축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기자축원의 모습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속한 소속집단을 떠나 이러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는 그들이 속한 소속집단을 떠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속해있는 소속집단을 찾아온 인물(대개 이들은 원조자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에게 이를 부탁하기도 하지만 이는 분리 혹

30) 여기에서 사용하는 반대자, 원조자, 송신자, 수신자 등은 Greimas가 설정한 행위자의 목록인 *opponent, helper, sender, receiver* 등에 각각 대응한다. A.-J. Greimas, *Structural Semantics*(tr. by D. McDowell et al., Nebraska Uni., 1983) p.207 및 拙稿 pp.20-4 참조.

은 추방이라는 것의 변이된 형태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혼사장애의 모습에 있어서도 몇몇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리와 귀환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에 그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업은 유교적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이념적인 것과 관련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³¹⁾ 따라서 이러한 분리라는 양상이 실제적인 것이던 심리적인 것이던 간에 등장인물에 의해 인식되고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하겠다.

심리적 분리가 일어난 이후에 이들은 원조자 혹은 원조자의 대행자와 접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한가지만 나오는 수도 있고 양자가 모두 다 나오는 수도 있다. 이들 모두가 나오는 경우는 하나의 인물 기능을 여러 사람이 행할 수도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³²⁾ 원조자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원조자와의 접촉양상은 일반적으로 꿈이라는 형태를 매개로 갖는다. 대개 이 꿈은 태몽의 형태를 갖추기도 하여 꿈속의 인물이 자신은 누구의 지시로 혹은 누구의 힘을 입어 인연을 이루게 되었음을 밝히는 데³³⁾ 바로 여기에서의 누구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원조자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원조자의 모습과 송신자의 모습이 일치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원적 사고방식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들 초월적 존재가 바로 이 혼사장애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31)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혼사장애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획득-신랑과 업 B형이다. 拙稿, 앞의 글, pp.56-60 참조.

32) 여기에서 우리는 행위자(actant)와 연기자(actor)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행위자는 인물의 기능에 의해 우리가 추상화한 것이라던 연기자란 바로 작품 속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구체화된 고유명사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어떤 작품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능-꿈 행위자의 기능-을 구체화된 복수의 인물-꿈 연기자-이 수행할 수도 있으며, 한 사람의 연기자가 복수의 기능-꿈 복수의 행위자-을 수행할 수도 있다. 즉 행위자와 연기자의 대응이 작품 안에서 항상 일대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A. J. Greimas, 앞의 책, pp.197-221 및 拙稿, 앞의 글, pp.21-2 참조.

33)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서술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문득 서다히로서 오운이 이러나며 옥동지 뱀학을 타고 나려와 지뵈 왕 소조는 상계동지러니 죄를 어더 갈바를 몰라 저저하다가 복두칠성이 인도하여 이곳으로 왔소오니 바라건더 부인은 어엿비 너기소서 하고 부인의 품으로 들거늘> 金東旭 編,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卷一(羅孫書屋, 1973) p.399.

인물을 수신자로 하여 주체가 추구하고자 하였던 객체로서의 자식을 보내주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선 이를 송신자의 입장이 아닌 원조자의 입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원조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대성사부처, 산신령, 옥제 등등 작품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겠으나 이들이 초월적 세계에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다. 또한 원조자의 대행자와 원조자 사이를 구분할 수도 있다. 이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원조자의 대행자를 원조자로 볼 수 있으며, 원조자를 앞서 언급한 송신자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조자의 대행자나 원조자 역시 동일한 집단 내에서의 인물이기에 이를 같은 층위에 놓고 살필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불교에 있어서의 최고신격이라 할 수 있는 부처와 이를 추구하는 현실적 세계 내에서의 불승을 동일한 신격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둘 사이에는 엄연한 구별이 있어 동일시될 수 없는 상호 구분되는 신격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도교적 세계에 있어서 도사와 옥제와의 관계를 살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초월적 세계에 존재하는 신격으로서의 원조자와 현실적 세계 내에서 이들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지점에서 있는 매개자로서 존재하는 인격으로서의 원조자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는 당대의 향유층이 지니고 있었던 종교에 대한 태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종교에 대한 태도와도 관계되는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그치기로 한다. 어찌되었건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조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자신들의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가능성은 고전소설의 향유층이 가지는 독서의 관습에 의하여 과업의 해결이 예측된다 하겠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그들은 마침내 생산을 한다. 생산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들의 과업은 일단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온전한 사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異物을 생산함으로써 과업의 해결이 유보되는 경우도 있다. 금방울이나 김원의 탄생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단 자녀를 생산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가장 긴박한 과업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리적·공간적 분리로부터 자신이 속한 소속집단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진다. 물론 공간적 분리가 행하여졌을 때에도 그 귀환이라는 모습

이 훨씬 먼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심리적 상태의 분리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속집단으로의 귀환이라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생산과 함께 그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과업의 일차적 해결에 이름으로써 자신들의 소속집단이라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따라서 그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부부관계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종생적 결합으로서의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 사이에 있어서의 자식의 생산은 일회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單産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를 작품의 결구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단일 주인공을 중심으로한 작품의 전개가 필요하다는 창작 기제로서의 제약 때문에 單産이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인공으로서의 인물 이외에 여타의 형제를 낳았다고 서술하면서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바로 이 인물이 주인공의 기능을 수행한다—을 설정하여 결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작품의 주인공이 작품의 결말부에 이르러 多産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과 대비하였을 때, 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대에 있어서 생산의 완성은 자식이 성장기라는 과정을 거쳐 배우자를 맞이하여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데 있는 것으로 좀더 정확히는 재생산을 확인하는데 있는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單産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後嗣는 다시 끊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³⁴⁾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식을 생산함으로써 종생적이고 확고한 것이라고 믿었던 부부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혼사장애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⁵⁾ 그러하기에 출생한 주인공과 부모 사이의 이별과 재회라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혼사장애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주인공

34) 바로 이 지점에서 작품의 부모들이 주인공의 옷깃에 생년월일시를 써넣고 신물을 채우고 하는 부분이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35) 필자는 이러한 혼사장애의 반복에 대하여 주인공의 혼사장애를 검토하면서 이를 연쇄형의 혼사장애라 규정하여 설명한 바 있다. 拙稿, 앞의 글, pp.96-102.

의 입장에서 영웅의 일대기라는 구조 속에서 주인공의 영웅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절차라는 의미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품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렸을 때이지, 여기에서 살피고자하는 주인공의 부모의 입장에서 파악한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그것은 곧 처음 그들이 위기로 느꼈던 절손의 가능성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자식과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실현된다. 따라서 부모와 주인공의 분리 또는 부와 모 그리고 주인공의 분리가 나타났을 때, 이것은 앞서 언급한 주인공의 입장에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의 의미 역시 지니게 된다 하겠다. 더군다나 부와 모 그리고 주인공이라는 三者가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가 되었을 때 그 의미는 더욱 복잡 다기화된다 할 수 있겠다.³⁶⁾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에 혼사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주인공과 부모 사이의 분리만이 있을 때, 부부로서의 부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앞서 살핀 바 있는 과정을 되풀이하여³⁷⁾ 다시 자식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다. 이 두번째의 경우가 작품 속에서는 오히려 가능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 그 주도적인 역할은 주인공으로서의 자식이 수행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왜냐하면 이후의 서술의 중심은 분명 주인공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파업은 부모에게 부과

36) 물론 여기에서는 작품에 따라 부와 모가 구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때 부모가 구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작품의 서술 중심이 온전히 주인공에게 집중된다는 점에 있어서 사건 서술에 있어서 집약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하겠으며, 또한 작품의 인후관계를 살피는데 있어서도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라는 단선적인 전거를 전제로 한다면 본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겠다. 반면에 부모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입장에서의 혼사장애의 지속 혹은 자식의 입장에서의 온전한 가족관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주인공의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전제조건 아래에서는 문학사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부모가 일찍 구물하는 작품군이 그렇지 않은 작품군보다 선행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37) 도입부에서 처음 나타난 혼사장애의 모습 곧 자식이 없어 기자추원을 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되어 있다 하겠으며 주인공은 원조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인공, 부, 모 三者가 각각 분리가 되었을 때 이들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선 부의 입장에서부터 검토하기로 하자. 부의 입장에서는 이미 배우자로서의 모(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아내)를 상실하였기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방법이 그 하나며, 이때 배우자로서의 모를 찾아가 찾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부부관계의 핵심이 세계의 지속에 있기에 부가장적 사회구조를 염두에 두었을 때에는 부의 모 찾기가 과정은 무의미한 것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³⁸⁾ 또다른 방법은 부가 새로운 배우자로서의 모를 만나 새로운 부부관계를 형성하여 생산하는 방식이다.³⁹⁾

모의 입장에서는 먼저 새로운 배우자로서의 부를 만나서 혼사를 통하여 자식을 생산하는 방식이나 이는 부계 중심의 부가장적 지배질서가 존재하던 당대에 있어서는 이를 결혼의 위기를 극복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다른 방법은 잃어버린 배우자로서의 부를 찾아 다시 앞서의 과정을 되풀이하여 자식을 생산하는 방식이나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더욱더 바람직한 것은 잃어버린 배우자인 부까지 함께 찾는 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모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는 많은 수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⁴⁰⁾

38) 작품에 있어서도 실제로 부친이 모친을 직접 찾아나서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39)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장풍운전에서 그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장시랑이 아내와 자식을 잃어버렸음을 확인하고 부남태수로 도입하여 진부인을 재취한다. 이후 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졌을 때 진부인에 대한 처리가 이본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경판에서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완판에서는 진부인이 생존하여 함께 사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도남문고본 장풍운전으로 장시랑과 진부인 사이에 자식 천운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인다.

40) 이점은 주인공의 배우자가 겪는 수난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회복-신부과업형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拙稿, 앞의 글, pp.72-81. 특히 장한절효기같은 작품에서는 모가 따로 분리되었을 때, 모가 보여주는 거친 삶의 모습은 여성 수난 그 자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사건 전개물 보여주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주인공의 부모의 입장에서 혼사장애의 설정이 가능하며, 그 형태는 회복의 혼사장애로서 되풀이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혼사장애의 운전한 극복은 작품의 결말부에 이르러 자식이 부귀다남하다는 多産性的의 서술에 이르러야 비로소 완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작품의 주인공은, 그의 부모가 유일한 혈육인 자기 자신만을 생산한 것과는 달리,⁴¹⁾ 多産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고전소설의 도입부와 결말부가 보여주는 의미의 핵심이 있다 하겠다. 이제 결말부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5. 혼사장애로 본 결말부와 그 의미

앞서 우리는 고전소설의 도입부가 결핍이라는 도습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살폈다. 그 결핍의 원인은 바로 세계의 단절이라는 위기로 나타나며, 세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혼사에 의한 종성적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생산함으로써 즉 자기복제의 과정을 통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고전소설의 결말부⁴²⁾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기왕의 연구에 있어서 이 결말부는 일반적으로 <행복한 결말>⁴³⁾이라 일컬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행

41) 작품에 따라서는 주인공의 姉妹가 나타나는 경우(장백전)도 있으나 부계 우위라는 점에서, 특히나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나타난 종손중심의 사고 방식을 고려하여, 여성 자매가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42) 소설에 있어서 결말의 위치를 설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徐仁錫, 古典小說의 結末構造와 그 世界觀(國文學研究 66, 1984) pp.11-2를 참조할 것. 이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먼저 주인공에게 새로운 상황이 제시되는가의 여부, 그리고 이야기하는 시간과 이야기된 시간 사이의 시간비(time-ratio)이다.

43) 고전소설의 결말이 행복한 결말이라는 견해는 金台俊의 朝鮮小說史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온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경우를 들면 다음과 같다.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二友出版社, 1975); 金炳國, 春香傳의 文學性에 관한 批評의 接近 試論(古典文學研究 2, 1974); 徐大錫, 古典小說의 <幸福한 結末>과 韓國人의 意識(冠嶽語文研究 3, 1978); 成賢慶,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嶺南大出版部, 1981); 徐仁錫, 古典小說의 結末構造와 그 世界觀(國

복한 결말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東洋倫理의 情趣요 時代精神〉,⁴⁴⁾ 〈祝祭的 기쁨〉,⁴⁵⁾ 〈怨恨忌避의 思考에서 形成된 現象〉,⁴⁶⁾ 〈一如 의식을 바탕으로 한 民族思考〉,⁴⁷⁾ 〈순환론적 시간·역사관〉⁴⁸⁾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결말부의 내용을 정형화하여 이를 〈이름을 올려 都邑을 創建하거나 氏族 流派 등을 創始〉하고 〈神異로운 죽음을 하여 神格化된다〉거나, 〈危機를 鬭爭의으로 克服하고 勝利者가 되었다〉, 혹은 〈가족과의 재회, 주인공의 죽음〉, 〈영광회복〉 등 작품의 주인공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태평성대를 이룸〉 〈가문의 번영〉 〈부모의 천수후 죽음〉 〈자식의 소개〉 〈주인공의 죽음〉 〈자손의 번영〉의 모습 즉 현세적 부귀영화를 향유하는 것으로 단락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덧붙여 〈유한자로서의 자각〉 〈영원한 세계로의 수직적 초월〉이라는 모습을 보여준다⁴⁹⁾ 하겠다. 이는 작품의 주인공 공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후일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주인공의 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진술한다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세상에서 자신과 자식 그리고 손자의 축으로 연결되는 가문의 지속과 번영을 보고, 자신들의 천수를 누리다 죽는다 하겠다. 주인공이 자신의 영웅성을 보이기 이전에 이미 부모가 구물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는 곧 자식과 자식의 식솔들로 구성된 가족과의 재회가 결말부에서 드러나면서 이들의 부귀와 지속을 확인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손자의 세대(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세대)에 해당하는 서술의 특징이다. 그것은 곧 앞서 언급한 바 있는 老에서 少로의 전이와 小에서 多로의 전이라는 특징이 반드시 복수형으로 서술되는 손자들의 모습에서 확인된다는 점이다. 대개 자신들의 자식은

文學研究 66, 1984) 고전소설의 결말은 모두 행복한 결말이라는 것은 아니며, 행복한 결말과는 다른 입장에서 논의된 연구도 있음을 밝혀둔다.

44) 金台俊, 앞의 책, p.190.

45) 金炳國, 앞의 글, p.13.

46) 徐大錫, 앞의 글, p.242.

47) 成賢慶, 앞의 책, p.165.

48) 徐仁錫, 앞의 글, p.153.

49) 徐仁錫, 위의 글, pp.135-53.

의아들이라는 단수의 형태를 보이는데 비하여 이들은 복수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식과의 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극복하고자 하였던 세계의 단절이라는 위기의 측면에서 이러한 위기를 우여곡절 끝에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여기에서 부부는 자신들에게 다시 부과되었던 혼사장애의 과업을 해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식과의 재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업이 부과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린 자식과의 헤어짐이라는 가능성은 자식의 성장에 의해 이제는 회피할 수 있는 일이 되었지만, 자식의 혼사에 있어서 즉 자식과 며느리라는 다음 세대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때 나타나는 혼사장애의 전개 양상은 부모대에 있어서의 혼사장애의 전개 양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렇다 하여 자식대에 있어서 절손의 위기가 온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자식의 세대에 있어서의 혼사장애와 자신들의 세대에 해당하는 부모의 세대에 있어서의 혼사장애 사이의 특징을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것은 곧 자식의 세대에 있어서 나타나는 혼사장애는 획득의 혼사장애와 회복의 혼사장애라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부모의 세대에 있어서 나타나는 혼사장애는 그 중심되는 것이 주로 회복의 혼사장애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즉 획득의 혼사장애는 자식의 세대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식의 세대에 있어서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세대에 있어서는 회복의 혼사장애만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부모의 세대에 있어서의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획득의 혼사장애는 세계의 지속이라는 그 가능성을 지니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례적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으며, 회복의 혼사장애는 이와는 달리 세계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심의 표명으로 과약함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세대에 의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혼사장애의 발생 가능성은 자식의 세대에 의해서 생산

된 다시 말하면 자기복제 혹은 증식된 인물들의 복수화를 통하여 세계의 단절 가능성을 줄인다 하겠다. 예를 들자면 첫째부인과의 사이에서 3자 2녀를 생산하고, 둘째부인과의 사이에서 2자 1녀를 생산하여 계승승승 부귀영화를 누렸다더라는 서술에 이르렀으므로 부모의 세대에 부과되었던 과업의 완전한 해결을 이롭과 동시에 이를 다음 세대에게 과업으로 물려주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죽음 이후의 혼사장애는 온전히 자식의 세대에 있어서 혹은 손자의 세대에 있어서 혼사장애의 몫으로 돌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작품의 도입부와 결말부가 보여주는 대응된 양상은 곧 정형화된 것의 의미를 추적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선 도입부에 있어서의 혼사장애의 발생을 가능하게 했던 절손의 위기에서 비롯하여 전개되는 바, 그것의 극복 가능성은 單産性과 미숙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계속 이 문제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에 작품의 결말부에 이르르면 이러한 미숙성과 단산성은 어느 정도 극복된다. 즉 單産性은 多産性에 의해 거의 온전하게 극복되는데 비하여, 미숙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혼사장애의 극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소설의 결말부 이후의 전개가능성은 여전히 존속한다 하겠다. 바로 이 지점에서 累代記라는 형태의 장편으로의 전개 가능성을 지닌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들 고전소설의 정형화된 결말부가 이를 향유하는 향유층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일까? 이는 곧 세계의 지속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라고 하겠다. 즉 인식되는 세계는 독립된 한 개인의 죽음이나 소멸로 끝나는 한시적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다. 개체로서의 한 개인의 생이라는 것은 곧 그의 죽음 혹은 소멸과 함께 끝나는 것이라고 할지 몰라도 사람의 재생산이라는 자기 복제과정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세계는 지속되며 이러한 세계의 지속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각각의 개인의 삶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를 표명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동일시되는, 향유층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믿음으로까지 확대해 볼 수 있는, 자기 복제 과정이 바로 혼사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그

단산성과 미숙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서술을 고전소설은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러한 자기복제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조선조 후기 사회에 있어서 강조되던 가문이라는 개념과 매개됨으로써⁵⁰⁾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한가지 덧붙여 언급할 것은 작품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는 <유한자로서의 자각>과 <영원한 세계로의 수직적 초월>이라는 모습이 지니는 의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존적 존재로서의 세계와 자존적 존재로서의 세계라는 세계의 두가지 존재 방식에 대한 해결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유한자로서의 자각>에 의해 파악된 세계는 지속의 가능성을 상실한 단절된 세계로 이해된다 하였을 때, 바로 인식의 주체로 존재하는 사람은 혼사와 생산이라는 방식에 의하여 자기 동일시가 가능하다는 지속의 가능성을 혼사장애의 해결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유한자로서의 자각을 무한자로서의 자각으로 전환하면서 세계의 지속을 확인한다 하겠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원한 세계로의 수직적 초월이 가능하며, 이때 수직적 초월은 생산한 사람과 생산된 사람이 동일시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유한한 것으로 파악된 세계가 무한한 것으로 파악된 세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유한자에서 무한자로 나타난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무한자에서 무한자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렇게 무한자로 전환된 세계는 바로 자존적 존재로서의 세계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은 세계의 두가지 존재방식인 자존적 존재로서의 세계와 의존적 존재로서의 세계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의존적 존재로서의 세계가 자존적 존재로서의 세계로 전이될 수 있음을, 따라서 두 세계는 대립되는 것이 아닌 상호 화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체로서의 사람 또는 자아와 객체로서

50) 사실 가문이라는 것은 혈연의 지속이라는 측면을 제일 중요시하여 종손^{宗孫} 사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종손사상은 특히나 유교를 신봉하던 성리학자들에 의해 禮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특히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의 예란 聖의 제도화와는 달리 생활의 실천윤리라는 측면에서 俗의 제도화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하나의 실천윤리로 강조되어 鄉約의 보급이라는 경향을 통하여 향촌 사회의 지배원리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鄉約의 성립과 보급에 대하여는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論 8[朝鮮前期 書院과 鄉約(國史編纂委員會, 1981)]을 참조할 것.

의 세계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하겠다.

6. 결 론

위에서 우리는 정형화되어 있는 고전소설의 도입부와 결말부가 지닐 수 있는 의미를 세계의 지속과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혼사와 생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혼사장애와의 관련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전소설의 도입부에서 결말부로 진행이라는 것은 한시적 존재인 사람이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무한한 존재로의 전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혼사와 생산이라는 자기 복제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어서 여기에서는 협의의 혼사장애와 광의의 혼사장애의 설정이 필요하며, 광의의 혼사장애에는 획득의 혼사장애와 회복의 혼사장애라는 구분이 가능하고, 획득의 혼사장애가 바로 협의의 혼사장애에 속한다 하였으며, 회복의 혼사장애가 부모의 세대에 있어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회복의 혼사장애에는 다음 세대 곧 자식의 세대에 있어서 고유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혼사장애가 지니는 의미는 단지 부부관계라는 수평적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장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자관계라는 수직적 가족관계의 장애로써 기능하게 됨에 따라 세계의 지속에 대한 장애라는 모습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세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가 도입부에 있어서 혼사장애의 형태로 드러난다 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세대에 있어서 혼사장애가 지니고 있는 무산성 혹은 단산성은 결말부에 이르러 다음 세대에 있어서의 다산성이라는 모습으로 온전히 극복되거나 그 미숙성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도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것은 한시적 존재로 파악된 사람의 삶이 자기 동일시라는 자기 복제 과정에 대한 믿음의 형태를 통하여 무한한 존재로서의 사람의 삶이라는 모습으로 전이되고, 아울러 이러한 사람에 의해 규정되는 세계 역시 의존적 세계에서 자존적 세계로 전이될 수 있으며, 그 전이의 모습은 수직적 초월이라는 형태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물론 여기에서는 부수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세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혼사장애를 통하여 도입부와 결말부의 대비에 의한 점토이기에 미흡한 감은 있지만, 이를 고전소설의 이해와 연관시킬 때, 주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보여주는 일대기적 구조라는 것 역시 영웅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속성에 대한 대응의 양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때 영웅으로서 주인공이 보여주는 투쟁은 영웅적 자아와 이에 대립되는 세계와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속과 세계의 단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세계의 지속을 위한 투쟁이라는 측면에서의 의미 파악이 필요함을 드러내준다 하겠다.

〈參考文獻〉

-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史論 8 朝鮮前期 書院과 鄉約, 國史編纂委員會, 1981.
-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二友出版社, 1975.
- 金東旭(編),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卷一, 二, 三,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73.
- 金東旭, W.E. Skillend, & D. Bouchez(共編),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卷四, 五, 羅孫書屋, 1975.
- 金炳國, 春香傳의 文學性에 관한 批評的 接近 試論, 古典文學研究 2, 1974.
-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1971.
- 金鐘澈, 玉樹記研究, 國文學研究 71, 1985.
- 金忠實, 新小說에 나타난 婚事障礙樣相에 對한 研究, 梨花女大 碩士學位論文, 1981.
- 金台俊, 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 閔 燦, 女性英雄小說의 出現과 後代의 變貌, 國文學研究 78, 1986.
- 박태상, 장화홍련전의 구조와 의미,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8.
- 徐大錫, 古典小說의 〈幸福한 結末〉과 韓國人의 意識, 冠嶽語文研究 3, 1978.
- _____, 韓國巫歌의 研究, 文學思想社, 1980.
- _____,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梨大出版部, 1985.
- 徐仁錫, 古典小說의 結末構造와 그 世界觀, 國文學研究 66, 1984.
- 成賢慶,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 嶺南大出版部, 1981.

- _____, 고전소설과 가문, 家와 家門,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9.
- 宋俊浩, 朝鮮社會史研究, 一潮閣, 1987.
- 신동일, 韓國古典小說에 미친 明代短篇小說의 影響,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85.
- 李相澤, 韓國古典小說의 探究, 中央出版, 1981.
- 李志映, 韓國結婚試鍊譚 研究, 國文學研究 85, 1987.
- 李昶憲, 고전소설의 혼사장에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國文學研究 81, 1987.
- _____, 京板坊刻小說의 商業的 性格과 異本出現에 對한 研究, 冠嶽語文研究 12, 1987.
- 조동일,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東亞文化 10, 1971.
-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83.
- Greimas, A.-J., Structural Semantics, tr. by D. McDowell, R. Schleifer, A. Velie, Lincoln: Uni. of Nebraska Press, 1983.
- Propp, V., Morphology of the Folktale, tr. by L. Scott, Indiana Uni., 1968.